

축 사(게재용)

군민여러분 그리고 우리지역 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군의회 의장 이재학입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한해의
끝무렵에 송시중 고흥 문화원장님이 蘭菊吟社 한시집 하권 국역 발간 작
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시는 정감 어린 순수 우리말이었으나 우리말로 표기할 수단이 없어 부
득이 한자로 표기했던 선인들의 서정을 표현한 우리의 문학으로, 공백일
뿐했던 고대 문학사에 끼친 공적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학자들은 서
얼시라고 폄하하는 등 국수주의의 편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편견을 단호히 배제하고, 그 그윽한 서정의 꽃을 다시 피워야
합니다. 당시 부득이 빌려 입었던 漢복을 벗겨내고 우리 본래의 韓복으로
갈아입혀 선인들의 풍부한 감성을 우리말로 재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
시 우리 선조들의 감성과 정서를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도 창작’이란 말이 있습니다. 국역시도 시이어야 하기에 국역과정
에서 겪는 어려움은 창작시의 그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문화원
장님 산고의 고통으로 멎진 국역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전통문화 계승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흥군 의회에서도 전통문화 계승에 항상
협조하는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고흥군의회 의장 이재학